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 사찰 내 차량출입

불자 김영찬씨(52)는 14일 가족과 함께 도선사를 참배했다. 봄이 오는 산길을 걸으며 산사를 찾는 묘미는 대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웅전에 참배하기까지 여러 번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일주문 뒤에 주차장이 있지만 법당 앞까지 차량을 몰고가는 불자각한 사람 때문이었다.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성스러운 수행도량이지 관광지가 아니다. 스님들이 묵언하며 수행하고 있으며 불자들의 수행공간이다.

수행공간인 사찰의 차량출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호젓한 마음으로 조용한 산사를 기대하고 찾아가지만 실재없이 오르내리는 차량으로 시끄러울 뿐 아니라 경내가 주차장화 돼있기 일쑤다. 그렇다고 주차장이 넘치는 것도 아니다. 비어있다.

통도사 일주문 아래에는 하마비(下馬碑)가 서 있다. 옛날에는 말을 타는 귀인들이 이곳에 도착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들어 갔다고 한다.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는 하마비는 현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찰 내에까지 차가 들어오는 것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사찰측에도 문제가 있다. 스님들은 신도들이 경내까지 차를 몰고오는 것을 불편처럼 여기는 인식을 버리게 할 책임이 있다. 이제부터는 스님들과 신도 입원들부터 모범을 보여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동차는 소음도 문제지만 배출가스 때문에 소중한 성보문화재의 훼손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은 바람을 애타게 버린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차로 뚫어놓는 꼴은, 이런 퇴색해야 할 행위이다.

김원우 기자 (www.buddhania.com)

## 로마교황청 고산스님 초청

### 10월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참석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천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만난다. 두 종교지도자의 역사적인 회동은 오는 10월 24~27일 교황청이 주최해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지도자회의에서 이뤄진다.

로마교황청이 주최해 '세계 평화와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최창규 성균관장이 초청을 받았다. 조계종총무원은 고산스님의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4일 주한 로마교황청 대사가 총무원을 방문. 고산스님을 만나 자세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종교지도자의 만남 자체만도 세계적인 관심사일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두 종교의 지혜를 나누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해 인류에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세기말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진다.

천주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불교계 대표와 단란 적은 없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금강산 사찰복원 일방진행 유감"

### 조계종, 현대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5일 금강산 사찰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현대측에 전달했다.

고산스님은 공문을 통해 "귀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강산 사찰복원사업 없이 본 종단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불교도의 공동 합의 및 본 종단과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시아의 심상진부장은 "신계사 복원사업은 아직 구상단계일 뿐"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며 불교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통도사 봄꽃은 피는데...  
영축산 통도사 경내에 봄이 피었다. 매화와 산수유가 흐드러진 경내는 부처님의 손길 같은 포근함이 감돈다. 통도사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산사에서 봄을 맞으려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 '초발심 회복운동' 전개

### 조계종 참회·발심·효행·용맹주간 선정

25일 선포식...스티커 배포 출가-열반절 참회지정주간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7일 "승가본분을 확립하고 수행경도를 조성하여, 계율의식이 존중되는 종단 본연의 모습을 일깨우겠다"는 취지로 출가제일부터 올해 내내 '초발심 회복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출가제일부터 열반절까지 참회와 자정 주간 △초파일 전 일주일 발심주간 △우린분절 전 일주일 효행주간 △성도재 일 전 일주일 용맹주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조계종은 25일 출가제일을 기해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총회위원 등 종단의 중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발심 회복운동' 선포식을 갖고 '초발심'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배포하며 범종단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스티커는 1차로 10만 장 제작해 배포한다. 열반제일인 4월 1일까지 8일 동안 각 사찰별로 '참회와 자정, 초발심'을 주제로 기도정진하거나 법회를 봉행한다.

춘천 대전 등 올해 새로 지정한 5곳의 진법도량 지정 기념 법회도 '초발심 회복' 법회로 봉행하며, 본말사주지 연수의 입제식을 포살법회로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도 개최해 '조계종단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조계종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수행경도 실종과 계율의식의 해이, 승가내 불평주의의 광배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이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지난 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기획실장 안성스님은 "올해의 운동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는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불교가 되기 위한 2단계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 읽은 불서·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절마다 도서실(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불·기도·법회를 마치고 도서실에 들어가 불서를 읽거나 중급했던 교리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불서를 대어받아 집에 가서 가족이 함께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 나온 불서 한권씩을 다니는 절에 발송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령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드는 불사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주춧돌 놓기입니다. <관련기사 14면>

△참가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 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디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디피아에 접속해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nia.com

## 출가절 특집 6면

## 일타 큰스님께서 모으신 화엄경 명언집!

###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타큰스님 편역

화엄경을 독송하다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에 감격하여 한 대목씩 초출해 놓은 것이 이 책이 되었다.  
아무튼 읽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다 보면 보살의 해탈, 보리심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타큰스님 서문 중에서—

이별에 애착하여 가슴이 답답한 것을 근심이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슬퍼하는 것을 탄식이라 한다. 괴로움이란 나쁜 어떻게 하여 점점 자라게 시작한다.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성스러운 진리이다.

—명언 중에서—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국관 210쪽 / 값 5,500원

##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치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갖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지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효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